



[해설] 조동철 금융위원  
금리인하 필요성 시사  
03



Economy

코스피	2168.01 (-8.98)	코스닥	745.37 (-8.08)
금리 (미국 3년)	1.72 (-0.01)	환율 (원/달러)	1169.40 (+2.90) (8일)

# 사이트서 매매 BTS 등 황제株 OTC 등 제도권증시 편입 시급

(빅히트엔터)

(금투협 운영 장외시장)

빅히트엔터 1년 새 67% 급등  
사설 장외시장서 75만원에 거래  
수요·주가 상승에 안정성 요구  
공인된 장외거래시장 입성 관심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의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고공행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빅히트의 주식 가치가 상당하고, 투자자들의 수요도 크다는 점에서 공인된 장외거래시장인 K-OTC로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빅히트의 주당 가치가 75만원까지 치솟았다. 실제 사설 장외거래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에는 주당 75만원에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가 나왔다. 지난해 4월 넷마블이 빅히트 주식을 주당 약 45만원 가치

로 사들인 것과 비교하면 불과 1년 새 주식이 가치가 66.6%나 급등한 셈이다.

한 때 빅히트가 상장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시장에 퍼지자 일반 투자자들은 물론 금융투자업계에서도 '균침'을 흘렸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빅히트는 올해 상장 계획이 없음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빅히트의 주식이 사설 장외거래장이 아닌 공인된 시장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식이 가격이 치솟고 있고, 주식 거래를 원하는 수요도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주식 거래의 안정성도 요구된다. 현재 빅히트 주식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사설 장외거래사이트에서는 주식거래가 개인간의 신용으로 이뤄진다. 개인이 원하는 주식 매도 가격과 수량을 연락처와 함께 올려놓으면 매수를 원하는 투자자가 해당 번호로 연락해 거래하는 식이다.

특히사설 장외주식거래 사이트에서 발생한 거래내역은 과세당국이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어 이른바 '탈세'가 이뤄지는 시장이란 시선이 존재한다. 가격을 부풀리는 작전세력에 의해 장외주식 주가가 쉽게 요동치기도 한다.

반면 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해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인 K-OTC 안에서는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또 주식을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거래가 가능해 주주들의 거래 편의성도 높다.

정부 역시 K-OTC를 통한 장외주식 거래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한 시장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0.5%→0.3%),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10%) 면제 등을 통해 K-OTC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상장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K-OTC를 통해 시장의 적정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실제 삼삼SDS, 미래에셋생명, 제주항공, 카페24 등 많은 우량기업들이 K-OTC를 거쳐 국내 증시에 상장했다.

K-OTC에서 빅히트 주식이 거래되기 위해선 회사 측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K-OTC는 협회가 정한 공시 의무



1% 넘게 하락한 코스닥

8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8.08포인트(1.07%) 내린 745.37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를 준수해 상장이사를 밝힌 등록기업,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매출 등 상장요건을 갖춘 기업을 협회가 지정하는 기업으로 이뤄진다.

빅히트는 개인 주주가 500명에 미치지 않아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 때문에 빅히트는 상장이사를 스스로 밝힌 등록기업으로 K-OTC에 들어갈 수 있다. K-OTC 관계자에 따르면 빅히트

가 등록 의지만 밝힌다면 등록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빅히트가 장외주식시장에서 '핫'한 종목인 만큼 공인된 장외거래 시장으로 들어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장기적으로 회사와 주주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이다"고 말했다.

/손범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반도체 부진 등 수출 위축에 경상수지 6년9개월來 '최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6년9개월 만에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반도체 경기와 대(對)중국 수출이 위축되면서 상품수지가 악화된 탓이다. 3월 경상수지는 월간 기준 8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으나 오는 4월에는 흑자행진이 멈출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19년 3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1분기 경상수지는 112억5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이는 지난 2012년 2분기(109억4000만달러) 이후 6년9개월(27분기) 만에 최소 흑자다.

반도체 부진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줄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196억1000만달러로 쪼그라든 탓이다. 1분기 상품수지 흑자는 2014년 1분기(170억6000만달러) 이후 5년(20분기) 만에 최소치를 나타냈다.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1분기 수출은 1375억달러로 전년 대비 -8.4%를 줄였다. 분기 기준 수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6년 3분기(-3.9%) 이후 2년6개월(10분기) 만에 처음이다.

한은 관계자는 "세계 교역량 둔화와

반도체 단가 하락, 중국으로의 수출 축소 등에 따른 영향으로 상품 수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 수입 감소와 석탄, 석유제품, 가스 등 원자재 수입 감소로 수입도 줄었다. 1분기 수입은 전년 대비 7.6% 감소한 1178억9000만달러로 지난 2016년 3분기 -1.5% 이후 10분기 만에 감소를 나타냈다.

서비스수지는 적자폭이 축소됐다. 1분기 서비스수지 적자는 76억6000만달러로 전년(93억1000만달러) 대비 줄었다.

여행, 운송수지가 개선된 영향이 컸다. 1분기 여행수지 적자는 35억7000만달러로 지난 2016년 4분기(23억9000만달러 적자) 이후 2년3개월(9분기) 만에 최소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운송수지 적자는 전년(15억5000만달러) 대비 감소한 9억달러를 기록했다.

한은은 "중국인과 일본인 등 입국자 수는 증가한 반면 출국자의 여행소비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적자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3면에 계속)

/김희주 기자 hj89@

##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5만개 육성

### 정부 '중소 수출종합지원대책'

지방 수출유망 기업도 5000곳 육성  
물류비 지원, 해외혁신거점 등 설치

해외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해외 온라인 쇼핑물 등을 통해 제품을 파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을 위한 수출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다.

특히 온라인을 활용한 수출이 2016년부터 수입을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2022년까지 온라인 시장 진출기업 1만5000개를 키우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힘을 합쳐 지방에 있는 수출유망 기업도 5000곳 육성한다. 한류를 적극 활용해 신흥시장 개척 등 수출국가도 다변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연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수출상품, 산업·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해가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제기됐던 수출정책의 미비점을 분석해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지원제도와 인프라를 재편하고 정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온라인 시장 진출지원 시스템과 지역의 수출유망기업 육성 제도를 잘 정착시키고, 해외 혁신거점 설치나 국제기구 설립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해외진출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정부는 온라인 수출 기업들을 위해 생산, 마케팅, 판매, 물류 등을 연계하는 종합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련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자금도 지원해준다.

해외 쇼핑물 등을 통한 주문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 B2C시장은 지난해 2조9000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5조9000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B2B 부문 수출도 7조7000억에서 10조6000억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을 돕는다. 국내 물류기업 등을 통해 수출물량을 집적할 수 있도록 참고비용을 지원하고, 해외의 경우 수요가 높은 10여 곳에선 현지 물류비도 지원한다.

보관·통관·배송을 공항 등 한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용 창고인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도 구축한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